

격 월 간 발 행
2021.10/11
vol.285

사람 세상



아들을 잃고 혼자가 된 노모에게 한벗의 의연금과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한 벗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 · 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미안마 한벗지부 운영

(미안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모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를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벗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행)

한벗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미얀마 지부, ‘구호활동 분주’

쿠테타에 저항하는 시민항쟁으로 한빛의 월체어, 유모차 기증과 보육원 지원이 중단되고 있지만, 현지인 직원이 근무하는 한빛 지부는 희생자와 빈민구호활동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병원진료를 못 받는 아동



뇌성장애아동



폭격 희생 아동



손주와 사는 독거노인



산으로 피신한 주민 간호



남자들이 사라진 마을



폭격에 희생당한 시신



현지구호단체의 영수증

미얀마 정황

군부의 폭격과 무차별 살상으로 수많은 난민이 산속으로 피신해 있습니다. 또 도시주민은 공무원과 의료진 파업, 공장폐쇄에 따른 대규모 실업과 물가상승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가난한 서민의 호구와 고통이 큼니다.

한빛의 미얀마 의연금

지금까지 5차에 걸쳐 540만원을 보냈습니다. 의연금은 현지 구호단체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가구를 방문해 전달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9월, 10월 중 에는 양곤 인근 마을을 비롯해

중부의 마그웨이(Magway)와 앙란(Ang Lan)주 환자와 장애아동, 독거노인 등 10여 가구와 구호단체 2개소에 전달했습니다.

5만원은 3식구의 한 달 생활비

현지 직원은 기부금을 쪼개느라 바쁩니다. 병원폐쇄로 치료 못 받는 환자나 장애아동에겐 5만원씩, 지역 구호단체 10만원. 어린 손자와 사는 독거노인 1~2만원. 직원은 우리 돈 1만원도 큰 위로가 된다고 기부회원들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곤궁에 처한 미얀마 보육원

보육원생 26만명(1,600곳)이 곤궁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없는 보육원은 아이들 급식을 전적으로 기부금에 의존하는데, 군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탁발(스님들의 거리모금)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년에 만들어준 놀이터



보육원에 남은 동승들이 어린이잡지에 빠져 있다.



의연금 영수증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미얀마 보육원은 사찰이 빈곤가구 아이들을 받아 숙식과 교육을 맡아주는 곳입니다. 부모있는 경우가 70~80%, 나머지 20~30%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군부가 수업을 탁발을 금해 식량이 부족해지자 부모가 있는 아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고아들과 동승만 남아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달라 보육원의 호소

양곤 빈민지역의 ‘달라’ 보육원생은 900명이나 됩니다. 2019년 만리현감리교회 지원을 받아 한뼉이 놀이터를 만들어 주었고, 합창단 육성을 위해 민성숙 회원

이 기다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주지스님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현재 135명이 남았는데 이마저 먹이기 힘들답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아이들의 유일한 일과가 한뼉이 보내주는 어린이잡지 읽기라며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하루 식비 25만원

보육원 식구 145명의 하루 식비 25만원. 하루 두 끼만 먹으니 1인당 한 끼에 862원인 셈입니다. 마침 경산복지재단 최재화 이사장님이 100만원을 기부해주셔서 서둘러 50만원을 보냈습니다. 한뼉이 돕고 있는 다른 한 곳의 보육원에도 이달 말 식비를 보냅니다. 어서 계엄이 풀려야 할 텐데-

미얀마 의연금을 기다립니다. 국민은행 763601-04-155077. 예금주 : 한뼉재단



왕년의 이동봉사대원

김옥주 사장은 동대문에서 33년째 운동복 도매업을 하는 분으로 1995년부터 이동봉사대원으로 활동하셨다. 2007년, 장애인콜택시를 서울시가 운영하게 되면서 많은 봉사대원이 활동을 놓았지만, 김 사장은 빈곤국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기증하는 ‘휠체어날개달기’ 사업에 참여하며 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다.

잊을 수 없는 미얀마 방문



2012년 김옥주, 정순이 부부를 포함한 회원 8명이 미얀마를 방문해 휠체어를 전달하고 돌아왔다. 귀국 후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갔다. 동대문 시장은 만만한 곳이 아니다. 이후 장성한 1남 1녀를 출가시켰다. 김옥주 사장 61세, 부인 정순이 여사 58세, 아직 왕성한 데다

사업은 아직 쏠쏠한 편이다. 무엇보다 남다른 사업 노하우를 놓을 수 없다.

미얀마에서 인생 2막을

지난 6월, 부부가 사무실을 찾아와 뜻밖의 말을 꺼낸다. “미얀마에서 봉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 선생이 되물었다. “사업이 망했어요?” 김 사장은 손을 내저었다. “거기 가서 사업하려는 게 아니고 미얀마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코로나로 사업이 힘든가보다 했다. 그런데 지난 10월, 운동복 350벌을 가지고 다시 찾아왔다. “미얀마 가서 사는 거 그냥 한 말 아닙니다. 우리 부부가 오래 생각한 겁니다.”

그럼 갑시다

‘한뼘은 방 얻어줄 돈 없어요.’ 부부는 외국인의 미얀마 방문금지가 해제되는 내년 초, 방을 얻기 위해 떠난다. 미얀마에서 펼쳐질 이 부부의 멋진 인생 2막을 기대한다.



과거 이동봉사대원이던 이경화 선생이 주간보호센터의 '50+보람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부터 근무하고 계시다. 보람일자리란 장년층 대상으로 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직원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도와주는 업무이다.



새 장판을 깔아주시다

지난 10월 이경화 선생이 주간보호실 이용자들이 누워서 쉬는 마루의 장

판이 너무 낡았다며 새 장판을 깔아주시겠다는. 직원이 비용을 걱정했더니 고맙게도 자비를 들여 해주겠다고-. 며칠 후 역시 이동봉사대원이시던 김영무 선생까지 오시어 장판교체작업을 해주셨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마침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 운영하

는 YouTube 방송이 찾아온 김에 출연까지 하시게 되었지요.

위드 코로나19를 기다려요

작년 3월부터 이용자의 30%~50%만 올 수 있었던 주간센터는 위드 코로나19 정책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될까? 그동안 이제나 저제나 고대하다 주저앉곤 했었는데 이번엔 정상화될까? 우리 장애인도 코로나19와 같이 살 수 있어요. 어서 만나게 해주세요. 단풍 구경이라도 함께 하면 좋겠는데-

근로장학생

- 숙명여자대학교 - 김수빈 학생 고맙습니다.

후원물품 고맙습니다

- 푸드뱅크 - 빵 60개

한빛등지 소식

“민혁 군의 가족행사”



김민혁(20세) 군의 가족행사

민혁 군 아버님은 근무가 없는 주말이면 어김없이 등지에 들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이브를 해주고 집에 데려가 함께 하룻밤을 지낸다. 이는 엄마와 동생 등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정례행사. 등지 이용자 부모 중 이런 경우는 없다.

등지 정착의 성공사례

민혁 군은 지난 2016년 등지로 왔다. 뇌성복합장애로 휠체어를 탄다. 특수학교를 다니지만 주 2회 음악치료 선생이 내방도 해주신다. 음악을 들으면 곧바로 기분이 좋아지고, 청소기가 움직이면 소리를 지르며 온몸으로 즐거워한다. 이제는 직원들과도 악수도 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정도가 되었다. 처음 등지에 왔을 때 부모님은 낯선 환경에 적응할지 걱정했는데 지금은 염려를 놓으셨다. 바람직한 시설 위탁의 모형이다.

기부해 주신 후원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8월 17일 ~ 10월 16일 ()안은 횟수)

강순기 1만(2) 강신순 2만(2) 강인수 1만(2) 강훈선 5천(2) 고유미 1만(2)
 광봉현 1만(2) 구혜림 1만(1) 권미정 3만(2) 권영수 10만(2)
 공영순 2만(2) 길 현 5천(2) 김간란 5만(2) 김미진 2만(2) 김선향 1만(2)
 김여은 1만(2) 김영순 5천(1) 김영진 1만(1) 김용락 5천(2) 김윤근 1만(2)
 김윤희 1만(1) 김인숙 1만(2) 김인곤 1만(2) 김명순 1만(2) 김민서 5만(2)
 김태일 1만(2) 김한서 5만(2) 김호영 1만(2) 마은영 5천(2) 문정희 2만(2)
 박혜진 1만(2) 박희수 3만(2) 박성준 1만(2) 박지원 1만(1) 박찬울 1만(2)
 박푸름 1만(2) 백승열 4만(2) 서소녀 1만(2) 서인숙 1만(2) 성다혜 1만(2)
 송은숙 1만(2) 송옥진 1만(2) 오광진 1만(2) 오성진 1만(2) 유정옥 5천(2)
 유정자 10만(2) 윤덕수 2만(1) 윤일심 3만(2) 윤정애 1만(2)
 윤정현 3만(2) 윤태훈 1만(2) 이정진 1만(2) 이대환 1만(1) 이병수 2만(2)
 이상수A 1만(2) 이상수B 1만(2) 이옥순 1만(2) 이윤경 1만(1)
 이윤경건보 5천(2) 이인섭 1만(2) 이재호 1만(2) 이지영 1만(2)
 이현주 5천(2) 이태균 5만(2) 이태환 1만(2) 이혜란 5천(2) 임경숙 5천(2)
 임영택 1만(2) 임재창 3만(2) 장영숙 1만(2) 장진섭 1만(2) 장호근 1만(2)
 정완교 1만(2) 제갈윤 1만(2) 조기택 2만(2) 조길용 3만(2) 조민진 2만(1)
 조성운 5만(2) 조은미 5천(1) 조은이 2만(2) 조은주 10만(2)
 (주)삼술무역 5만(2) 지현정 2만(2) 진 권 1만(2) 진옥란 3만(2)

진주형 2만(2) 차민우 1만(2) 채순옥 2만(2) 천유미 2만(1)
 최경희 1만(2) 최미정 1만(2) 최선영 1만(2) 최순우 1만(1)
 추지훈 1만(2) 한지행 1만(2) 한초덕 2만(2) 홍영미 10만(2)
 황민규 2만(2) 황정현 3만(2). 서강어린이집 347,000원
 열림교회 10만(2) 서울서부지방검찰청 40만(1)

선물 고맙습니다

- 공영순(후원자) 계란 / 김명규(이용자) 식재료
- 김영신(후원자) 기저귀 등 / 김영호(이용자) 수박 등
- 박주용(이용자) 식재료 / 박지원(봉사자) 롤케이크
- 성산1동주민센터 식품 / 손영숙(봉사자) 달걀
- 원석범(이용자) 비타500 / 이기민(후원자) 캔커피
- 이태균(후원자) 커피 / 조복연(후원자) 기저귀
- 홍기택(후원자) 사과 / 푸드뱅크 식재료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방역키트 / 롯데카드(후원기관) 쌀 등

노인들이 온다

현재 국내 65세 이상 인구 854만명. 3년 후인 2025년에는 천만 명을 넘어(인구의 20%)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처럼 고령화속도가 빠르지만 우리사회의 대비가 너무 뒤쳐졌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

잘사는 나라(OECD)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세계 최고이다. 과연 선진국일까? 또 젊은 세대와 노인의 가치관 간극도 심각하다. 노인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갇히는 일이다. 곧 가족과의 분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을 시설에 보내는 비율이 높다(일본 15%, 한국 23%).

노인들의 소원

노인의 소원은 집에서 돌봄을 받는 것이다. 스웨덴 등 선진국의 노인복지는 20년 전부터 홈케어(Home Care)로 전환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어떤가? 약간의 치매증세만 보여도 가족은 요양원에 보낼 생각부터 한다. 그런데 최근 주목할 조짐이 있다. 그동안 증가세

이던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20년도를 정점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점이다. 이에 맞물려 방문요양 신청과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이 지원하는 복지용구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홈케어(재택돌봄)의 조건

홈케어는 요양보호사와 '복지용구'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특히 노인은 신체기능이 저하되기에 남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는 복지용구 활용이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복지용구(노인용품) 지원제도나 활용 면에서 매우 뒤져있고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복지용구 지원제도

복지용구는 65세 이상 노인 중 등급 받은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65세 이상 830만명 중 등급자는 100만명(12%)에 불과하니 등급받기가 쉽지는 않다(등급신청→지역 건강보험공단). 등급을 받으면 대여비나 구입비의 85%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기에 큰 도움이 된다. 반면 대다수의 미등급 노인은 시중에서 구입해야 한다.

앞으로 복지용구를 비롯한 유용한 노인용품 종류와 소개, 구입방법 등에 대해 안내한다.

복지용구에 대해 알아 두세요

‘복지용구’란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노인용품(돌봄용품)을 말한다. 등급 받은 노인에게는 대여비와 구입비의 85%를 보험이 부담한다. 모두 17개 품목으로, 대여품목과 구입품목으로 나뉜다. 구입비를 지원하는 품목은 짚 제품들이다.

대여 혹은 구입품목

구 분	품 목	수요 많은 제품
대여제품(6종)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욕창매트리스, 배회감지기, 이동욕조, 경사로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구입제품(13종)	목욕의자, 안전손잡이, 경사로, 미끄럼방지양말, 욕창방석, 욕창매트리스, 지팡이, 보행보조기, 자세변환용구, 이동변기, 간이변기, 요실금팬티	욕창매트리스, 미끄럼방지매트

대여료 비교(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구 분	시 장 가 격	대 여 료(월)		제 품 종 류
수동휠체어	401,600 - 708,000원	등급자	3,855 - 6,690원	22개 제품
		미등급자	25,300 - 44,600원	
전동침대	1,029,000 - 2,147,000원	등급자	9,135 - 19,050원	29개 제품
		미등급자	60,900 - 127,000원	



실내용 휠체어(복지용구 지원제품 아님)

• 수동휠체어만 해도 22종이 있다. 전동침대 29개. 물론 각각 기능이 다르다. 또 많이 구입하는 미끄럼방지매트는 41종이나 된다. 이를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떻게 골라야 하나? 문제는 이를 안내 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미등급자는 어떻게?

미등급 노인도 복지용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분들은 시중에서 구입하거나 빌려야 한다.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구입(대여)해야 하나? 건강보험이 지원하는 복지용구는 노인용품의 극히 일부이다. 요긴한, 수많은 용품이 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얻고, 어떻게 구입할 수 있는가? 앞으로 이에 대해 알려드린다.

재단소식

한뼘 버스가 움직인다



2년 가까이 주차장에 멈춰서있던 리프트버스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되면 막혔던 관광부터 시작될 것이다. 11월부터 관광 비수기로 접어들지만 그래도 내년 봄을 기약할 수 있지 않은가? 한뼘 버스가 다시 장애인 관광에 나설 봄을 기다린다.



유모차, 케냐와 아프리카 이주민 마을 기증

케냐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에게 유모차 30대를, 또 일산의 아프리카 이주민 마을에도 6대를 기증했습니다.

김옥주 사장, 고급 운동복 350벌 기증

기증 받은 운동복을 미안마로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혜경 님의 저금통

(주)유니컴퍼니에서 시리얼 20박스 보내와

올 봄에 이어 시리얼 20박스 80봉을 기증해주셨습니다. 두루 나누겠습니다.

예당식품의 추석 선물

한뼘등지에 매월 과일 주스를 보내주는 예당식품에서 추석을 맞아 사무국에도 선물해주셨습니다. 예당식품 주스는 백화점에 납품하는 고급 제품입니다. 고맙습니다.

홍혜경 님의 저금통

한뼘의 오랜 장애인회원인 홍혜경 님이 실로 귀한 선물을 가져오셨습니다. 무려 135,340원. 요즘 보기 힘든 동전, 얼마나 오래 모았을까? 몽글한 동전이었습니다.

재단소식



‘공주님의 치마’ 11월 소식지와 함께 우송합니다

후원회원들을 위해 꾸민 ‘공주님의 치마’ 간행이 늦어져 11월 소식지와 함께 보냅니다.

미얀마 의연금 기부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영숙(한빛회원) 50만원, 백진양 10만원, 예옥석 2만원,
이풍연 5만원(이상 방정환기금회원), 정금숙(장애인회원) 2만원,
최재화(경산복지재단이사장) 100만원, 무명 3만원/합 172만원



새 후원회원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관희(전 이동봉사대 부이사장), 미국 킬린의 송영희, 박순화 선생님

나운영 동요곡집 CD 출반

작고한 유경손 고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나운영기념사업회’ (회장 나 건)에서 출판했습니다. 나운영 선생의 동요 대다수를 유경손 선생님이 작사하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선생님, 그립습니다. 특별후원금 30만원과 함께

특별후원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 김애자 선생님 소개로 달라스 교민 **이혜선** 선생님이 \$600.
- **박현성** 이동봉사회원, 추석 떡 선물과 함께 10만원
- 휠체어날개달기 회원인 **김경미** 선생이 8월에 이어 이번에도 10만원
- 한번 건물 4층 룸을 임대하신 일본인 **쿠메유코** 스님 7만원
- 이름을 밝히지 않은 분이 8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 명절 때마다 선물 보내주시는 **국기호** 선생님이
추석선물로 커다란 사과 2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에서 벗어납니다. 올해의 단풍은 더없이 반가웠지요.

21년 8월~9월 30일 입금분

※ 9월에 인출되지 않는 경우 다음 소식지에 게재합니다.

()안은 개월 수

〈한뼉재단〉

문숙자(2) **이상 1,000원**
김계순(2) 김미란(2) **이상 2,000원**
강희준(2) 구성유(1) 손미연(2)
이상 3,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균(2) 구재순(2) 김관중(1)
김대현(2) 김명문(2) 김미영(2) 김수영(2)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2) 김혜정(2)
나호연(2) 노수진(2) 도현정(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배재수(2)
서동욱(2) 설대호(2) 신성애(2) 신인아(2)
신혜경(2) 엄민애(2)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란희(2)
이상희(2) 이승영(2) 이승희(2) 이양훈(2)
이종수(2) 이종태(2) 이지영(3)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장수관(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규영(2)
조명순(2) 주우익(2) 채정예(1) 최수진(1)
최원진(2) 하성남(2) 한진숙(2) 현승혜(2)
홍영일(2) 홍혜경(2)

이상 5,000원

(주)상정무역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희정(2) 구다원(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1) 김동현(2) 김려원(2)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2) 김보금(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영지(2) 김옥남(2)
김완섭(2) 김용남(송파2) 김용남(효창1)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재(1) 김인숙(부산2) 김자경(2) 김재환(2)
김준형(2) 김진수(2) 김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배(2) 김형식(2) 김화중(2) 나효진(2)
노현욱(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준홍(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준(2)
박선영(2) 박순화(2) 박영주(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1)
박종성(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준숙/김신근(2)
백지웅(1) 서동범(1) 서미란(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송정석(2) 신동혁(2)
신영길(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1) 양일섭(2) 오병철(2)
오상만(2) 오상분(2) 오성근(2) 오용석(2)
오진균(1) 웅미경(2) 윤경자(2) 이건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2)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민정(2)
이상일(2) 이상조(2) 이선미(2) 이성직(2)
이송균(2) 이수경(2) 이양재(2)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윤상(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정우(1)
이종빈(2) 이종태(2) 이지영(2) 이지원(2)
이진훈(2) 이형영(2) 이호성(2) 임경민(2)
임난숙(2) 임동상(2) 임정순(2) 장관용(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전현민(2) 정규성(2) 정미영(2) 정봉열(2)
정석환(2) 정성훈(2) 정수연(1) 정수익(2)
정수확(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3)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진영(2) 조화기(2)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경한(2) 최명선(2)
최순희(2) 최유미(2) 최종문(2) 최준수(2)

최태도(2) 최효순(2) 추정일(2) 태효원(2)
표창호(2) 하정희(2) 한경미(2) 한성진(2)
한혜숙(2) 함정혜(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홍성금(2) 황경희(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황해국(2)

이상 10,000원

김병석(3) 현영돈(2) **이상 15,000원**

강만희(3) 강순화(2) 강영철(2) 김민주(2)
김수현(2) 김승태(2) 김영자(1) 김용신(2)
김인숙(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박훈(1) 백봉현(2) 변상순(2)
서성민(2) 신광재(3)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연세어학원/이주연(2) 오정연(2) 유광주(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권(2) 이상규(2)
이서중(2) 이선용(2) 이성재(2) 이숙재(1)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원기(3)
조윤식(2) 최경희(2) 최두홍(2)

이상 20,000원

강재철(2) 김계영(2) 김기형(2) 김은경(1)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2) 박용길(3)
성숙경(2) 신화용(2) 오상은(2) 오청근(2)
윤경자(2) 이상길(2) 이선희(2) 이희달(2)
임용재(2) 장혜실(2) 정병배(2) 최종락(2)
홍성관(2) 황영배(1)

이상 30,000원

박종성(2) **이상 35,000원**

고명지(2) 서판임(2) **이상 40,000원**

김은영(2) 김은주(2) 김현수(2) 김홍현(2)
민택산업/남기백(2) 박문영(2)
RTX스포츠(2) 엄혜령(2) 오명희(2) 이명덕(1)

이정숙(2) 이종우(2) 최혜자/함형복(2)
이상 5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구태연(2) 김윤희(2) 노희정(2)
 박지연(2) 어재형/신지영(2) 이승수(2)
 이영숙(2) 장우형 부이사장(2)
이상 100,000원

채진석 이사(2) **이상 150,000원**

안성환(2) **이상 300,000원**

명지춘해병원 교회(2) **이상 900,000원**

《힐체어날개달기》

조성우(2) **이상 5,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2) 김계호(2)
 김동현/김승기(2) 김명석(2) 김서주(2)
 김소하(2) 김승영(2) 김순이(1) 김영숙(2)
 김용환(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2) 김태윤(2)
 김현숙(노원)(2) 김혜숙(2) 남향숙(2)
 민혜영(2) 박만수(2) 박미애A(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2)
 신승엽(2) 안종필(2) 안지민/박미애(2)
 안지우/박미애(2) 양노식(2) 유은수(2)
 윤민정(2) 이가영(2) 이광호(1)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장욱(2) 이재숙(2) 이주연(1) 이지수(2)
 이진수(2) 이혜령(2) 이혜숙(2) 이현경(2)
 이형재(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술(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묵(2) 조선행/김은하(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유경(2)
 최윤지(2) 최진숙(2) 추경은(2) 한정민(1)
 한충길(2) 한혜영(2) 허명희(2) 홍경숙(2)
 홍상문(2)

이상 10,000원

강용희(2) 강인숙(2) 김경숙(3) 김덕길(2)
 김일생(2) 김진형(2) 김철상/아공이(2)

김효생(2) 박정경(2) 송경자(2) 오문영(2)
 이상희(2) 이연우/박정현(2)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2) 장혜연(2) 전승완(2)
 정경호(2) 정연희(2) 조민숙(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명숙(2) 최옥희(1)
 한광희(2)

이상 20,000원

(주)송지(2) 김옥수(2) 김옥주(2)
 이건우/박정현(2) 이태자(2) 최진경(2)
이상 30,000원

(주)서버존(2)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최정희(2)
이상 50,000원

박형상(2) **이상 100,000원**

박순신(1) **이상 120,000원**

변천섭(2) **이상 200,000원**

《한벗동지》

고현우(2) 공아영(2) 광희수(2) 기효순(2)
 김계자(2) 김인경(2) 김재열(2) 류민경(1)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지숙(2)
 서정민(2) 송호림(2) 심상우(2) 양윤희(2)
 양인희(2) 여희숙(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미영(2) 임정혜(1)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최은미(2) 한경희(2)
이상 5,000원

강현(2) 광영현/장형기(2) 구성모(2) 권오준(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희(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선라(1)
 김선옥(2) 김세연(2) 김승희(2) 김용미(2)
 김우주(2) 김인순(2) 김성석(2) 김태연(2)
 김혜정(2) 남성현(2) 노신규(2) 류재남(2)
 박건우(2) 박경희(2) 박리라(2) 박상현(2)
 박용우(2) 박일현(1)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변기정(2) 변아름(2)
 서동연(2) 서민향(2) 서정민(상암)(2)
 서희주(2) 신동연(2) 안국희(1)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태(2) 여일규(2)
 우기후(2) 우춘자(2) 유남주(1) 유예순(2)
 이강전(2) 이성림(1) 이소정(2) 이승순(2)
 이영순(2) 이용식(2) 이종욱(2) 이혜순(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장순주(2) 장유나(2) 장철만(2)
 전에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동지2)
 정재영(2) 정진하(2) 정향남(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은미(2)
 홍윤재(2) 황진숙(2)

이상 10,000원

강희정(2) 김경란(2) 김성우(2) 김임순(1)
 김정아(1) 김정효(1) 김희량(2) 박민희(2)
 박승환(2) 백진선(2) 송선미(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2)
 정현주(2) 하정운(2) 한재형(1)
 함종수/한정옥(2)

이상 20,000원

곽형우(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동지2) 성낙일(2) 오범균(2) 이웅기(1)
 이재용(2) 임혜숙(2) 정은영(2) 최갑석(2)
이상 30,000원

김간란(2) 윤미선(2) 조항미(2) 홍영미(2)
이상 50,000원

주지연(1) **이상 100,000원**

하대주(2) **이상 200,000원**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박현민(2) **이상 5,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진애(2)
 김왕수(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1) 이준구(원주)(1)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이상 1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1)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이상 20,000원**

김경준(2) 김기수(2) 김선광(2) 이태희(2)
이상 30,000원

김혜원(2) 유경환(2) 이상 50,000원

최수진(2) 이상 7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이상 100,000원

〈주간보호센터〉

김운수(2) 조승현(2) 이상 5,000원

김미영/허규민(2) 김세훈(2) 김인기(2)
박종미(2) 박채련(2) 양영춘(2) 오선주(2)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차경옥(2) 이상 10,000원

김민정(2) 이상 15,000원

김정훈(2) 김종범(2) 신효숙(1) 심진섭(2)
엄해경/김근일(2) 이상 2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이원재(2) 한가현(2)
이상 30,000원

신현관(2) 장안태(2) 홍지웅(2)
이상 50,000원

김현진(2) 이상 100,000원

〈미국 교민 후원금(달라스, 칼린)〉

달라스와 칼린에도 단풍이 아름답겠지요?
저희도 그렇게 물들도록 애쓰겠습니다.

〈2021년 9-10월〉 () 은 개월

• 달라스지역(\$1,500)
김운원 \$200(2)
스텔라 \$150(2)/미안마 \$100(포함)
장덕환 \$50(2) 케니 김 \$30(2)
지나 \$20(2)
특별후원 이혜선 \$600

• 칼린지역(\$550)
최정임 \$30(2) 성인숙 \$25(2)
고향미 \$20(2) 김은희 \$20(2)
김혜중 \$20(2) 백수산나 \$20(2)
이사벨라 \$20(2) 이정숙 \$20(2)
이영란 \$20(2). 무명 \$20
조마리나 \$20(2) 조용순 \$20(2)
허양옥 \$20(2) 박순화 \$20(1)
• 총(\$2,050)

미안마 방정환기금 내역은 별도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통권 제 285호
발행일:2021년 11월 10일
발행인:최명숙
제작:한빛재단
주소:(우04319)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TEL:(02)393-0661(대)
MOBILE:010-6747-0661
FAX:(02)712-6093
이메일: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www.hanbeot.org

한빛재단 임원

법인이사:최명숙(이사장) 장우형(부이사장)
김운원 김정희 김혜명 윤승모 채진석
유형진 유시영
법인감사:강만희 김훈
운영이사회:백진양(회장) 권진동 김자희
김현숙 엄해경 이경화

부서별 연락처

한빛동지:02)336-3100
주간보호:02)713-5050
휠체어기증본부:02)713-1005
한빛투어:02)702-1515

21년 8 ~ 9 월 재 정 보 고 (2개월 합산)

(단위:원)

수 입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정기후원금(재단)	19,774,428	시설전출금(동지/주간)	10,305,000
동지/주간후원금	7,170,000	미안마 사업비	1,620,000
휠체어날개달기 기금	5,170,000	어린이잡지 기증	2,600,000
방정환기금	2,109,000	식당 운영비	350,000
건물임대, 관리비	1,956,155	급여(3명/2개월)	10,066,120
직원식대 등	1,120,000	사회보험금	2,000,300
미안마 의연금	1,590,000	버스할부금	5,876,200
날개달기 전입금	1,800,000	기관운영비	4,615,300
잡수입	4,500,000	공과금/잡비	2,351,440
차입금	536,177	차입금상환	4,523,000
		수용비	1,418,400
총계	45,725,760	총계	45,725,400

후원계좌

- 한빛재단 국민 763601-04-002564
-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 한빛동지 국민 577301-01-127870
- 한빛주간보호센터 국민
763601-04-078400
- 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재정보고 내역은
한빛동지와 주간보호시설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등을 제외한
재단사무국의 재정현황입니다.



그림 : 백남호

공작새

오늘이야말로 틀림없이 결혼하게 될 거다.

사실인즉 어제 했어야 했지만, 그는 정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만 오면 됐었다.

그러나 신부는 오지 않았다. 곧 올 게다.

... 결혼식은 내일이 될 것이다.

쥘 · 르나르의 자연이야기 '박물지' (1972년 을유문고 손석린 역)에서 옮김

J.르나르(1864~1910년/프랑스)

사 략 세 상

미얀마 스님의 방



미얀마의 보육원

양곤 변두리의 사찰 보육원(판냐미). 이곳에는 유독 편부와 편모, 장애인 자녀와 외국으로 일하러 간 부모의 아이들이 많았다. 젓먹이도 3명이 있었는데, 유기된 아기란다. 원생은 모두 88명. 스님 두 분이 운영하고 있다. 선물을 나눠준 후 보육원을 둘러봐도 되겠느냐고 했더니 흔쾌히 허락하신다. 나이 많은 스님의 표정이 맑으시다.

스님의 방

보육원 건물은 주방과 침실, 그리고 불상을 모신 강당이 전부였다. 강당을 식당 겸 아이들 집합장소로 쓰고 있다. 이상하게도 화장실은 마당 건너편에 따로 있었는데 얼른 나와야 했다. 마당 한쪽에 작은 거처가 있어 들여다보았다. 주지 스님이 머무는 방이었다. 달랑 소지품 몇 개만 보이고 벽 한쪽에 불상이 모셔져 있다. 방에 딸린 화장실은 없었다.



청빈의 위엄

한 밤에도 섭씨 36도를 오르내리는데 에어컨이나 선풍기가 없다. TV나 라디오는 물론이고 심지어 거울도, 물 컵조차 없다. 아이들과 같이 먹고 같은 화장실 쓰며 같이 지낸다는 뜻이다. 방에는 형언할 수 없는 위엄과 고결함이 감돌고 있었다. 절로 기도가 나왔다.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시설 운영자는 이처럼 청빈의 의무를 저야 하느니!